

濟州島 民俗文化의 保存과 開發方向

玄 容 駿*

I. 濟州島 民俗文化의 特性

濟州島 民俗文化의 보존 또는 개발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는 우선 제주도 民俗文化의 특성부터 정리해 놓고 생각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존을 하든 개발을 하든, 그것은 그 특성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사·연구의 결과, 제주도의 民俗文化는 他道와 달리 특이하다는 것이 異口同聲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 특이한 것들 중 주요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物質文化에 있어 衣·食·住 生活方式이 특이하다는 것이다. 衣生活에 있어 가죽옷류는 이미 사라졌지만, <갈옷>이라는 특수한 勞動服을 만들어 거의 日常服으로 입고 있는 점, 食生活에 있어 보리·조 등 잡곡을 主食으로 하고 副食의 料理方式이 발달하지 못하여 매우 검소한 점 등이 지적된다. 住生活에 있어서는 더욱 특색이 있으니, 民家は 큼적끔직한 돌로 지어 띠로 지붕을 덮고 굽직한 받침돌로 바둑판처럼 엮어매고 있는 점, 울타리는 처마와 가지런한 높이로 널찍하게 돌로 두르고 대문이 없이 <정낭>을 걸쳐 놓는 점, 한 울타리 안에 一字型 건물이 <안거리><밖거리>로 배치되어 있어 父子의 家族이 獨立生計를 꾸려 가게 되어 있는 점, 그리고 石具類가 발달해 있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物質文化의 특성은 각박한 濟州風土와 雜穀栽培文化에서 所産된

*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學長

것으로, 돌과 바람을 이겨낸 지혜의 文化라 요약될 수 있다.

둘째, 家族慣行에 있어 家族形態·相續慣習·家族의 分業에 각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家族形態는 父子의 家族이 각각 실질적인 核家族을 형성하여 안거리와 밖거리에 分家 別居함으로써 核家族의 長點과 直系家族의 長點을 결충·보완하고 있고, 相續慣習은 이 家族形態와 상관이어서 均分制가 우세하다. 財產의 均分은 喪·祭禮 등의 의무 분담과 상관관계가 있어 그 義務도 분담된다. 또 家族의 分業에는 婦女子의 노동량이 많고 또 海女作業이 있어 女性의 對外活動이 활발하고 수입이 많아 主婦權의 범위가 크다.

이러한 家族慣行의 특성은 제주도의 각박한 風土條件에서 우러난 自立·勤勉의 精神的 所産으로 이에서 도둑·거지·대문이 없다는 三無의 美風이 형성되었다.

셋째, 民間信仰面에 있어 巫俗의 盛行, 男女部落祭의 二重構造 등 특성을 들 수 있다. 巫俗은 우리의 固有的 信仰形態로 도민의 全生活 영역의 支柱가 되었던 것인데, 근래는 주로 女性의 信仰으로 떨어져 있으나, 아직도 漁業·撫魂·疾病治療 등에 기능하고 있어 盛行하다. 이것은 각박한 風土條件으로 인한 現實的 生活苦를 合理的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超自然的인 方法으로 극복하려는 심리의 소산이다.

제주도에는 男性들이 주관하는 儒敎式 部落祭인 輔祭와 女性들이 주관하는 巫俗式 部落祭인 당굿이 並存하고 있다. 본래 男女共有의 部落祭였던 당굿에서 남성들이 분리 이탈하여 輔祭를 창설하고, 女性들은 원래의 信仰中心인 당을 차지하여 二重信仰性을 포출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儒敎文化의 男性社會 보급으로 인한 儒·巫文化의 構造的 특성과 濟州女性의 地位를 헤아려 볼 수 있다.

넷째, 口承文藝分野에 있어 民謠·巫歌·神話·傳說 등이 풍부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다. 民謠의 80% 이상이 勞動謠이며 노동요 중 근 80%가 女謠로서 濟州人의 비통한 생활과 勤勉·自立·不敗의 意志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각박한 風土의 雜穀栽培文化에서 우러난 생활의 표현이다.

盛行했던 巫俗의 굿은 풍부한 巫歌·神話を 產出하여 다른 지방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을 뿐 아니라, 巫樂·巫舞·巫劇을 產出하여 특이성과 그 예술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傳說 또한 濟州人의 괴로웠던 삶과 꿈을 표현한 것들이 많아 특이성을 보인다. 이러한 巫歌·神話·傳說들도 濟州文化의 淵源과 雜穀栽培文化에의 土着化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종합하여 보면 제주도의 民俗文化는 돌과 바람으로 집약되는 제주의 각박한 風土의 條件을 이겨 낸 지혜의 文化요, 強韌 不屈의 정신이 표출된 文化다.

제주도가 제주도다우려면, 그리고 제주도가 제주도답게 특색있게 발전하려면 이 民俗文化가 保存되고 開發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再論할 여지가 있을 수 없다.

II. 文化의 變化와 保存·開發

추상적·당위적으로 생각하여 民俗文化는 保存·開發되어야 한다고 다 찬의를 표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保存하고 어떻게 開發해야 하느냐 하고 따져 들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文化의 本質과 變化의 문제에 상관되기 때문이다.

辭典의 의미로 말하면, 保存이란 原狀 그대로를 존속 유지시킴을 뜻하고, 開發이란 개척하여 발전시킴을 뜻한다. 발전시킨다는 말은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옮겨 놓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를 民俗文化에 적용시켜 볼 때, 과연 文化現象을 원상 그대로 존속 유지시킬 수 있느냐, 또 개척하여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함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文化는 자연에 인공을 가하여 만들어 낸 生活樣式이요, 생활 그 자체다. 그것은 본래적으로 變化의 운명을 지닌 것이다. 內的으로는 보다 편히 잘살기 위한 發見과 發明에 의하여 文化는 변화하고, 外的으로는 外來文化의 접촉과 수용으로 변화한다. 이 變化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의 濟州 民俗文化는 이러한 변화가 거듭해 오

코 거듭해 가는 한 時點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時點의 文化 곧 生活樣式을 原狀으로 보며,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중지시켜 존속 유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자연 부딪치게 마련이다.

文化는 변화한다. 쉬지 않고 변화하지만, 어떤 목표나 중심이 없이 아무렇게나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 文化 안에서의 發明이나 發見도 그 文化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일어나고, 外來文化가 접촉해 온다 해도 自體文化의 價値觀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한다. 만일 그 文化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는 文化要素가 들어올 때는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령 佛敎나 天主教가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심한 반발이 있었던 것은 그 좋은 예다. 또 그러한 外來文化要素가 傳統文化의 본질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受容을 한다 해도 그것을 傳統文化의 본질에 맞게 變容시켜 받아 들인다. 가령 佛敎의 수입에 있어서 그것을 전통적인 土俗信仰의 바탕 위에 山神·龍王·七星信仰 등과 혼합하고 한국적인 佛敎로 土着化시킨 것은 그 한 예다. 이렇게 外來文化要素가 변용되어 土着化하므로 傳統文化는 변화한다 해도 그 構造의 本質은 흔들리지 않고 維持되게 마련이다.

또한 文化는 그 한 要素가 변화할 때 그 요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文化는 각 요소, 이를테면 社會組織·宗教·衣食住·生産技術·歲時風俗·冠婚喪祭·物質文化 등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기능관계를 지녀서 운행되는 構造體이기 때문에 그 한 요소가 변화를 일으키면 그 기능관계는 흐트러진다. 그래서 그 文化構造 전체가 일단 분해되고 다시 새로이 再構成되는 것이다. 이 분해와 재구성 과정의 기간은 社會的·文化的 不安의 시기요, 재구성이 완료되면 사회적 안정이 이룩된다. 그런데 文化는 부단히 변화를 계속하는 것이므로 이 不安과 安定은 계속 반복하며 文化는 발전해 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文化는 傳統文化의 構造의 本質을 항상 유지하려고 자체 조정을 하면서 보다 높은 단계로 변화해가는 것이니, 이는 벌써 文化의 發展이요, 開發이 되는 셈이다. 이에 文化는 스스로 開發의 과정을 걷고 있다는 論法이 성립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傳統文化的 構造的 本質을 유지하는 변용은 社會構成員의 保守主義가 자연적으로 지속될 때의 현상이고, 그렇지 못할 때의 변화양상은 판이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社會의 文化指導者, 이를테면 政治人·行政家·教育者·言論人·知識層 등이 이 保守主義를 일소하고 文化變化를 조종하고 교도할 때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은 일변하고 전통문화의 구조는 뿌리채 흔들리며 급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엔 자칫 잘못하면 전통문화를 멸시하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기 쉽고, 아니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傳統文化的 파괴를 범할 우려마저 있다. 현대가 바로 그러한 시기이고, 제주도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여기에 文化指導者의 현명한 文化觀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濟州民俗文化的 保存과 開發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 기본적 방향에 대한 해답은 자명한 것이 된다. 즉, 어느 時點의 生活文化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保存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保存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밖에 다른 게 아니다. 따라서 傳統的 濟州文化的 構造的 特質이 사라지지 않게 變容토록 하는 것이 最善策이요, 그러한 方向에서 保存과 開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Ⅲ. 保存과 開發의 方向

傳統的 濟州文化的 構造的 特質이 사라지지 않게 變容시킨다 함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돌과 바람을 이겨 낸 強韌 不屈의 정신과 지혜의 文化라는 제주 민속문화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기도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變容토록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안은 社會構成員에게 一任하여 내버리는 길이 있다. 방임해 두면 그들의 保守性에 의해서 그 특질이 사라지지 않게 자체조정을 해 가며 外來文化的 수용과 배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오늘날처럼 마스크이 발달하고 外來文化가 물밀어 오는 때에는 실효성이 적다, 따라서 적극적인 현명한 시책이 요구되게

마련이다.

傳統的인 濟州文化의 특질이 변질되지 않게 變容을 기도하는 일은 곧 濟州民俗文化를 開發하는 일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濟州民俗文化는 그 특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開發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개발의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면 濟州的 特質을 지니면서民俗文化는 변화하고, 자연적 결과로 기능을 상실한 文化要素는 殘存文化形態로 남거나 사라져 가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文化要素는 기능을 상실한 채로 保存의 방법을 강구할 도리밖에 없다.

여기에 유의할 것은 濟州文化의 특질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民俗文化를 파괴하거나 변질시키는 사례를 종종 보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은 현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온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文化指導者나 도민의 傳統文化觀과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濟州民俗文化的 保存과 開發의 方向과 자세 문제를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民俗文化는 生活文化이어서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이므로 濟州文化的 특질을 살리는 방향에서 開發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住宅形態에 있어 濟州石材의 활용, 안·밖거리 原理의 도입, 文學에 있어 民謠나 神話·傳說의 예술성 계승, 音樂·舞蹈·演劇 등에 있어 民謠·巫樂·巫舞·巫劇의 예술성을 계승한 再創造 따위와 같은 것이다.

둘째, 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는 殘存文化要素는 박물관 시설을 통해 보존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도리밖에 없다. 여기에서 박물관이라 함은 屋內博物館 뿐 아니라 民俗村도 포함한다. 이들 박물관에는 有形·無形의民俗文化가 立體的으로 保存·再演되어야 한다. 그 原型의 時點은 1940년대로 잡으면 가능할 것이다.

셋째, 濟州民俗文化的 철저한 調查研究가 시급히 先行되어야 한다.民俗文化가 사라지기 전에 각 분야의 文化要素와 기능·구조가 밝혀져야 구체적인 保存·開發의 방안이 나온다.

넷째, 文化指導者나 도민이 濟州民俗文化의 價値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긍지와 애착과 愛護精神이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 民俗文化를 놓고 非合理·非科學·迷神 운운하는 思考가 있는 한 올바른 保存과 開發은 기대하기 어렵다. 非合理·非科學인 듯한 民俗事象에서 그랬어야 할 先人의 생활지혜를 발견하여 감탄을 토할 때 비로소 올바른 보존과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전국 劃一主義的 文化政策이 지양되어야 한다. 民俗保存, 地方文化 운운해 가면서 획일적인 문화정책에 따라 生活文化를 동일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濟州는 濟州대로의 특수한 문화시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濟州民俗文化의 특성있는 보존과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도 민속문화의 보전과 개발방향

발표자 : **현용준**(제주대)

토론자 : **이창기**(영남대)

좌장(장주근) : 현길언 선생님이 대독을 해주셨습니다. 다 들으셨듯이 다섯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끝 부분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남대학의 이창기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창기 : 영남대학에서 온 이창기입니다. 우선 발표가 있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면 토론자가 몹시 곤혹스러워집니다. 만고의 진리 같은 말씀을 다 뱉어놓고 거기에 또 덧붙이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덧붙일 말씀도 없고 또 안붙일 수도 없고, 그런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 제주도 민속 문화에 대해서 평생을 정진해오신 현용준 교수님께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 그런 점에서 이 글을 읽고 제가 여기에 무슨 말을 더 덧붙일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당혹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나온 이상 또 얘기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토론이라기 보다는 선생님의 글을 읽고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몇 가지 문제를 덧붙이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속문화라고 했을 때, 이 민속문화라는 것은 주민들의 혹은 사회성원들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로 보지만 특히 민속문화라는 것은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바로 생활문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속문화를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문화로 규정을 한다면 바로 그 생활문화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 뭐 환경이라고 표현해도 좋

졌고 생활조건 혹은 생태학적 조건 어떻게 표현해도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삶의 터전에 의해서 유형지위치고 변화되어온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속문화, 생활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환경문제, 삶의 터전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논의할 수도 없고 형성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문화라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이 왜 미신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무속은 무속이 생성될 수 밖에 없는 생활조건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활조건 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속문화를 조금 수준 낮은 문화, 미신 타파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렇게 관념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민속문화는 매우 합리적인 생성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과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터전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문화는 그 터전이 바뀌면 자연적 문화 자체도 변화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문화의 변화의 과정, 변용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 주제인 민속문화의 보존문제, 개발문제 이런 것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그런 전제위에서 본다면 민속문화의 보존이라는 것은 바로 민속문화의 변화과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를 보호할 것이냐? 바로 민속문화라는 것이 삶의 터전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하고 어우러지지 못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변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삶의 터전의 바탕을 둘 수 있게끔 되돌려야 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값지고 지름지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생활을 값지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를 유도해가는 것이 바로 보존이고 개발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존이라는 것은 개발 그 자체이고, 우리가 개발한다 했을 때 개발의 기본 원리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삶의 문화를 방향지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발 그것이 바로 보존이다하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속문화, 혹은 생활문화를 삶의 터전에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외형적으로는 변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민생활의 중심원리로 민속문화, 생활문화가 남아 있어야만 한다. 외형은 변하더라도 중심원리로 이 생활문화가 남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보존이고 개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때 우리의 민속문화라는 것이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속문화의 보존이라는 것도 주민과 분리되어서는 논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보존의 기초는 바로 주민의 관심과 애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긍지, 이것이 주민들 생활속에 남아 있어야만 민속문화의 보존이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화적 전통에 대한 긍지가 남아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생활의 중심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주민들의 관심과 애호가 만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보존은 행정적 차원에서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즙냥정신,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즙냥정신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경제적 생활이 성숙되고 소비수준이 상승되며는 과거에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아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특히 감귤 생산이 많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소득이 증대되고 그러면서 저도 시골에서 상당히 놀란 일들이 많습니다. 농촌에 가서 겨울에 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려보면 서울에서 한달 조사할려고 작업을 준비해간 제 지갑보다도 동네 마실 다니는 청년들 지갑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즙냥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사회의 외형은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데 남아 있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기초는 주민들의 관심의 애호가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즉, 문화의 전통에 대한 긍지가 긍지로 남아 있어야 되고 생활의 중심을 이뤄 작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문화적 궁지라는 것은 맹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간직해야 한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한다 그것이 문화적 궁지로 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속문화의 형성 바탕과 관련해서 그것의 합리적 혹은 과학적 의미를 깨우치고 그것에 공감할 수 있겠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현용준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화적 형태가 제주도 속에, 우리 생활속에 형성되고 남아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논리적으로 혹은 인과적으로 설명을 해줘야만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공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학자들은 그런 문화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교육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교육이 너무 표피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구한 전통과 또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육성, 계승,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하지마는 왜 그것이 값진 것이냐, 왜 보존, 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혹은 과학적인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교육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의 특성이 강조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 이러한 문화형태가 생성됐고 또 오랜 세월동안 유지, 존속되었던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이러한 문화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흡족하게 성취되어질 수 없습니다.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제도적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보편교육에 치중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 이런 특수교육은 보편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중요시 되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많이 열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신문과 방송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과 방송 매체들이 민속문화, 향토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주신문이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온 이러한 노력은 매우 값지게 평가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기능을 스스로 맡고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제주 향토 언론의 흐름을 보면 흠족하지 못한 점들이 대단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도 제주 신문 일간지를 늘 매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주도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욕구가 더 강하겠지만 신문을 받을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1면 정치기사는 중앙지하고 거의 같을 수 밖에 없고, 2면 해외기사도 그럴 수 밖에 없고, 3면 기획, 평론이 나오는 데 대개 연합통신 전달을 받아서 편집을 합니다. 주로 4면과 5면이 아마 문화난으로 배경이 된 것 같은데 그 문화난에 있어서도 문화 단신 정도가 지역소개가 되고 대부분 중앙문화의 소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면하고 관련된다는 부분에서도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데 경제적 문제에 주된 관심이 있고 문화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방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과 방송이 민속문화,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넓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정책 당국자의 노력입니다.

우선 도, 시, 군 이러한 곳이 여러가지 정책적인 것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각급 기관에 문화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적인 경향을 미루어보면 도청이건, 시청이건, 군청이건 문화파트를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한가한 부서고 가장 힘없는 부서고, 또 그래서 그 쪽 부서로 배정받으면 좌천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푸대접 받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거의 전체적인 현상인가 본대요. 그런데 육지 뭐 평범한 군청에서는 다소 푸대접을 받아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제주도에서 어서만은 적어도 제주도의 민속문화, 향토문화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넓게 보려는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고, 우리 한국문화의 기본형을 여기서 찾아내야 한다는 넓은 과제로 본다면 제주도에서는 문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대단히 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는 데 기구를 많이 키우고 거창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문화파트에서는 그 기능만이라도 전문적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길만이라도 열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되 제주도는 정책적으로도 민속문화의 보존방향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좌장 :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께서 제주 민속문화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평소애 누구나 다 관심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건 적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부 대학의 이강오 선생님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토론해 주실 분들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오 : 저는 20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 올 때는 한 30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돌이나 바람 이런 특별한 품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문화인 것을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 어느 하나를 들어봐도 타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고, 모든 생활양식이 저의 지방하고는 크게 달랐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로는 신흥 종교를 연구한다고 한 두서너 차례 내왕할 때는 벌써 한 20~15년 이전이고 마지막 다녀간지가 13년 전인데 이제 와보니가 완전히 그냥 먼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제주시의 돌담같은 것도 완전하게 없어져 버리고 지방에 특토하게 큰 새끼로 얼어있던 집도 이제 구경할래야 할 수도 없고 언어도 완전히 육지 사람들 언어로 이제 바뀌져 버렸으니 이거 대단히 문화적으로는 발달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한심한 제주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주도의 풍속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웅준 선생님의 여러가지 말씀을 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저의 도와 비교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지금 여기 도의 특색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외치고 또 이제 지금 토론을 하신 선생님이 개발을 해도 결국 보존의 의미가 있게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의 도에서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각 부락에 있는 옛날 고추적인 유산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당산이라는 것이 저의 도에 부락마다 있던 것인데 이게 농도로서 꼭 농신을 숭배하고, 부락 수호신을 숭배하고 그런 것이 여기 지금 수신을 숭배하는 것하고 같았었는데, 예를 들면 무주, 장수 같은데 가면 15년 전만 해도 한 부락에 하나씩은 다 있었는데 지금 가면 없습니다. 지금 무주, 장수 지역에 잘해서 어떻게 해서 손이 안간 데가 한 두 부락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솟대 같은 것도 몇 해 전에는 있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도를 쳐도 순창 같은데 아주 그냥 뒤떨어진 지역에 어찌다가 새마을 운동이 잘못 되어서 남아 있는데 이거 개발을 한다고 보면 완전히 망쳐버리지 그걸 그냥 두지는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도의 입장을 봐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아마 제가 앞으로 이제 몇 해나 살는지 모르지만 한 5~6년 후에 가면 제주도의 특색은 완전히 못볼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저의 도의 예를 봐가지고 행정적인 면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보존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므로 개발 사업을 하시는 행정당국의 특별한 유의가 있어야 할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좌장 : 네, 감사했습니다. 개발을 조심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한 10분 정도 첫 번 주제에 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예, 부탁드립니다.

김홍식 : 명지대학의 김홍식입니다. 저도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발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마을이겠는데요. 그런 마을 계획, 제가 지금 예를 들자면 화북이라든지 그런 조그만데 계획만큼은 제주도 문화로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한테 좀 의뢰를 했으면 합니다. 전혀 제주도 문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개발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굉장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마는 제주도 문화 혹은 역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고 있다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주도 문화를 깊이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좌장 : 예, 감사합니다. 현용준 교수의 발표에도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같은 말씀으로 생각이 났읍니다. 한 분 더 네!

이기욱 : 제주 대학의 이기욱 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하신 이창기 선생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의 어떤 중심원리로 민속문화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주민생활의 중심원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때 변동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되고 생활패턴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읍니다. 헌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자 또 개발하자는 말이 참 어색하게 들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또 그러면은 과거의 문화를 해석하는데, 설명하는데 그쳐야 되는지, 그것을 현대생활에 알맞게 짜내서 맞춰 나가야 하는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전통문화를 개발·보존한다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통문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로 참석하신 이 선생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창기 : 발표하실 선생님 빠지고 나니까 화살이 제게 집중된 것 같습니다.

문화가 변해간다는 것은 그게 당연한 길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변해가는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 원형 자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항상 변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가 원형이라는 것도 문제지마는 그러나 문화가 변동해 간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로 본다면 생활의 중심 원리가 바뀔 때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냥 문화를 개발한다는 말자체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존하고 전승하며는 그게 발전이고 또 정책적으로 보며는 그게 개발인 것이지 문화를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심원리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의 생활원리로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생활원리 자체가 바뀌면 문화도 따라 바뀌어야 되죠. 그게 문화 발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능이 퇴화됐거나 이미 그 기능이 소멸된 그런 문화는 이제 박물관으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러나 문화를 전승한다고 했을 때 저는 문화형태의 외형 그 자체 그대로 남아서 이어 내려온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외형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원리는 외형이 크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넓은 우리 생활의 터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원리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바뀌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층빌딩이 서고 20층 호텔이 제주도에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생활원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갈때나 지게지고 농사일 할때나 기본원리는 같이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존·전승이라는 것은 그 원리를 전승하는 것이고 외형이 바뀌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본원리 자체가 바뀌지고 문화가 바뀌는 것은 그 기본원리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문제로 삼은 것은 생활원리가 바뀌어가지고 문화가 바뀌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속문화가 파괴되었건, 원형이 훼손되었건 간에 아마 그 책임을 따지자면 크게 두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항상 기본문화에 대

한 공권력의 힘이 원체 순간적으로 힘이 강하니까 이 행정력에 의해서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소위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돈벌기 위한, 돈을 버는 쪽으로 관심을 너무 쏟다보니 소위 관광문화가 몰고 온 외래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전통 문화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생활원리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것은 당연한 길이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홍정표 : 저 홍정표 입니다. 아까부터 보존이나 개발이라는 말씀들 참 구절절하게 좋은 말씀들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열린 심포지움이 시기로 봐서 조금 늦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제주도 특별 지역으로 벌써 종합개발사업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포지움이 1년만 전에 개최되었으면 오히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부터 말씀가운데 개발이라는 말 자체부터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 계셨는데 사실 그래요. 현용준 교수도 보존과 개발이라는 말풀이 마저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버려진 땅이라든지 버려진 물건이라든지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가들도 이 자리에 많이 오신걸로 믿습니다만 뒤야할 곳, 이걸 개발한답시고 합니다.

아까 경상도에서 오신 선생님 말씀 대단히 뼈저리게 들었습니다. 제발 민속문화는 건드리지 말고 개발해 달라고 한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행정가로서는 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태의연한 것을 개발해놔야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더 문화의 그 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발이다, 건설이다 해가지고 자연 그대로를 훼손시켜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문화재과에서 보존해야 할 것을 건설과에서는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파손되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건설국하고 문화재국하고는 같이 유기적인 유대를 가지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아까부터 참 누누히 보존이나 개발이나 하는 이런 말씀가운데는 물론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해야 우리가 옛 문화를 누려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그 문화는 다음 은 세 시대의 문화로 구축당하는 것이 법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학자님들이 좀 더 옛 우리 문화를 말씀과 같이 보존시키려면, 좀 더 심각하게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아까 누누히 우리 제주도 사람들 민속문화화재에 소홀하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소홀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미나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예, 아까 제가 오늘 심포지움 주제가 상처되는 개념이 되서 딱 콘크리트 같은 주제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들 나눠가다 보니까 대세가 뭐 결론이 간단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은 하지 말고 보존만 잘하자 그러면 그것이 개발이다, 대세가 그렇게 되가는 것 같습니다.